

‘한국종교의 토착적 근대화 운동’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15일 한·일 공동학술대회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원불교사상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15일 부터 이틀 동안 교내 승산기념관에서 한·일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동학과 원불교 등 ‘근대 한국종교의 토착적 근대화 운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한일 양국에서 서구적 근대성과 다른 ‘비서구적 근대성’을 고민해 온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비서구적 근대화의 구체적인 사례로 근대한국 개벽종교를 중심으로 전개된 토착적 근대화 운동에 대해 이론과 사례 양면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첫째 날 제1부에서 비서

구적 근대화론에 대한 이론적 모색을 시도하고, 제2부에서는 근대 한국 개벽종교에서의 토착적 근대성을 탐색하며, 둘째 날 제3부 개벽종교의 토착적 근대화 운동 사례 고찰에 이어 마지막 제4부는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된다.

특히 제1부 발표는 평생 비서구지역의 근대성을 연구해 온 한·일 학계 원로들로 구성됐으며, 25년 동안 일본 교토포럼에서 ‘동아시아의 공공성’을 연구해 온 김태창 중앙포럼 주간, 인도와 아프리카 연구를 집약해 최근 ‘토착적 근대’ 개념을 고안한 요카이치대학 기타지마 기신 명예교수, ‘대대문화문법’이라는 토착이론으로 한국문화를 분석한 사회학자 강

신표 인제대 명예교수, ‘유라시아 견문’으로 이름을 알린 이병한 박사가 비서구지역의 근대성을 서구적 근대성과 다른 틀로 설명한다.

또한, 제2, 3부는 다음 세대가 이어 받아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로 알려진 교토대학 오구라 기조 교수, 한일정치 사상 전문가 아산정책연구원 김석근 부원장, 종교적 영성과 신비 체험을 연구하는 서울대 종교학과 성해영 교수를 비롯해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과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동학에서 원불교에 이르는 개벽종교에 나타난 한국적 근대성과 근대화 운동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주장돼 온 비서구적 근대화론을 집단 지성의 형식으로 담론화함으로써 지난 1세기 동안 서구 중심 일변도로

치우친 한국학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원불교교수협의회 하계세미나도 16일 10시 30분부터 특별 색인으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자연과학이나 의학, 미래사회에 대해 근대종교, 특히 원불교가 어떻게 대응하고 발전시켜왔는가를 차동우(인하대) 교수, 임동호(전 을지대 교수) 박사, 남궁문(원광디지털대) 총장이 각각 발표하고, 원광대 이기학, 박성태, 이의강 교수를 좌장으로 세미나가 진행된다.

더불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원불교학 진흥과 신진연구자 발굴을 위해 원불교사상연구원이 처음 제정한 제1회 원불교학 신진연구자 학술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며, 첫 수상자로는 원불교 장흥교당 정향옥 교무가 선정됐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전통산업의 최고 명장 선정

익산시가 숙련 기술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8 익산시 명장’ 선정에 들어갔다.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 사업은 지역 숙련기술자가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지역산업 특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귀금속 1명, 섬유 1명, 이·미용 1명 등 총 3명의 명장이 탄생했다.

선정부문은 석공예, 귀금속, 섬유, 이·미용이며 신청자격은 15년 이상 동일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고, 7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관련 조례 및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고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지정된 시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특히 시는 섬유 부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숙련기술 보유 정도’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섬유 명장의 서류심사 기준을 개선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9월 12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익산시 읍면동장 또는 관련 단체 및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부문별 소관과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부문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 주관의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와 익산시 명장심사위원회의 3차 면접심사 등을 거쳐 부문별 각 1명을 익산시 명장으로 선정하고 오는 10월 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익산시 명장에게는 명장증서 및 인증현관 수여, 개발장려금 지급, 익산시 홍보책자 및 홈페이지 등재 등의 혜택이 지원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명장 사업이 숙련기술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숙련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 주요사업 현장 방문 통해 시민들과 소통 행정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은 지난 10일 군산시 야외수영장 방문을 시작으로 군산시 주요 사업현장 방문에 나서며 등 소통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 부시장은 첫 방문지인 군산시의 수영장의 직원들을 격려하며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야외수영장이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및 안전 관리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산단민원센터와 기업지원센터에서는 한때 군산경제의 주축이 되었던 산단 근로자들의 상실감을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친절함을 기본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기를 주문했다.

첫날 현장방문을 마친 이 부시장은 “향후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펼쳐 지역 현안의 누수 없는 추진과 민선7기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부시장 주요사업 현장 방문은 시 현안과 관련된 24개의 주요 사업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일회성 방문이 아닌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이 지난 10일 군산시 야외수영장 방문을 시작으로 군산시 주요 사업현장 방문에 나서며 등 소통 행정을 펼치고 있다.

군산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집중 지도 점검

군산시는 정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방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1회용품(플라스틱 컵) 사용 점검 및 집중 지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7월 한 달간 1회용품(플라스틱 컵) 사용 관련 홍보 및 현장계도를 실시했으나 일부 사업주 및 고객들이 자원재활용법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규정(테이크아웃의 경우 제외)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 지도·홍보에 나선다.

현장 확인 시 사업주가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를 고지했는지 여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적정량의 다회용컵 비치 및 안내문구 부착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관련 법령에서는 매장 외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인 경우에만 1회용 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위반 시 영업장 면적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희병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청정 군산을 만들기 위해 사업주 및 이용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병원 문화 창달 해 갈 것”

원광대병원 환자평가서 전국 5번째 안에 들어

원광대병원이 국내 500여 병상 이상 의료기관 92곳, 입원 경험 환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환자경험평가에서 전국 5위 안에 드는 놀라운 응답을 받아 관심을 끈다.

질의 문답 내용은 의료진과 간호사가 환자 말을 주의 깊게 경청 했는지, 회진 시간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 했는지, 환자를 대면할 때 존중과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는지 관해서였다.

또한 진료 및 치료 전·후 부차

에 관한 설명을 하였는지, 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 할 기회가 있었는지, 타 환자와 비교해서 공평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다.

이번 설문 조사를 담당 한 심평원은 전체 평균 점수가 83.9점이라고 밝히고 최고 값은 90.14점이 나왔다. 의료진과 환자 상호간 소통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최두영 병원장은 “근래에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에 대하여 서비스

의 발전적인 관점을 매우 중요시 여겨 왔는데 그 결과들이 우수하게 나타 나는 것 같다. 차후로도 환자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병원 문화를 창달 해 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원광대학교병원은 의사 서비스 부문, 투약 및 치료 과정 등 병원에서 필요 조건으로 갖춰야 할 부분들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 해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관내 3개 마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군산시는 임피면 구절마을, 서수면 내무장마을, 대이편 분토마을을 ‘소각산불이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하고 지난 9일 각 마을에 산림청 주관으로 ‘녹색마을’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봄, 가을철 건조시기에 논·밭두렁, 영농 부산물 등의 관행적인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키고자 실시되는 사업이다.

마을 이장을 책임자로 마을단위 서약을 통한 자발적인 소각근절 참여를 유도해 현재 군산시 관내 179개 마을이 서약에 참여했으며 이중 산불감소에 큰 기여를 한 3개 마을을 선정해 포상하게 됐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익산시가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만 8천여건에 2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과된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이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

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천원에서 최대 55만원이 부과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학생(단독세대주)의 경우는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 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